

목적선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전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제자양육), 모여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예배),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나눔선교)

새벽묵상

매일 경건

월(13) 마 7-9장

너희는 가서 내가 ()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화(14) 마 10-12장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15) 마 13-15장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와 이르되 이 곳은 ()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목(16) 마 16-18장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을 항상 보옵느니라

금(17) 마 19-2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025년 성경읽기표

월(13)	화(14)	수(15)	목(16)	금(17)	토(18)	주일(19)
마 7-9	마 10-12	마 13-15	마 16-18	마 19-21	마 22-24	마 25-막 1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안내

주일 예배	주 일 1 부	주일오전 9:00	2층 본당
	주 일 2 부	주일오전 11:00	2층 본당
	오후찬양예배	수일 오후 2:30	2층 본당
주일 교육	유 치 부	주일오전 11:00	제1교육관
부서 예배	유 초 등 부	주일오전 10:50	제2교육관
	중 고 등 부	주일오전 10:40	제3교육관
	대학 청년부	주일오후 1:30	제3교육관
주간 예배	수 요 예 배	수요일 오후 7:30	2층 본당
	금 요 예 배	금요일 오후 9:00	2층 본당
	새 벽 기도 회	오전 5:00	2층 본당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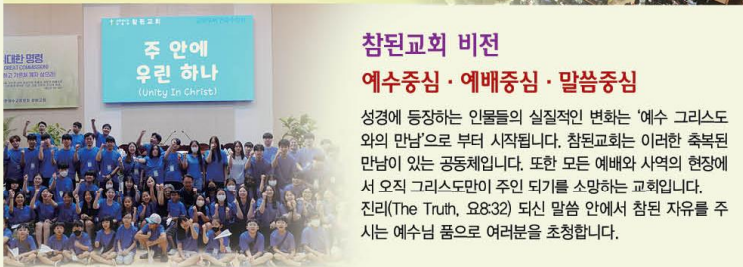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이루어집니다

"주 여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참된교회는 1970년 11월 22일에 설립되어 50여 년간 지역을 섬기며 건강하게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열며, 앞으로 50년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순수한 열정을 지닌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참된교회 비전

예수중심 · 예배중심 · 말씀중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참된교회는 이러한 축복된 만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모든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 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진리(The Truth, 요8:32) 되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요나단의 비전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 표어

진리(Truth)가 자유케 하리라(요 8:32)

공동체 사명

요나단 비전으로 다윗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 비전

예수중심 예배중심 말씀중심



통권 : 56권 41호
2025년 10월 12일
(설립 : 1970.11.1.)

CHAM DOEN Presbyterian Church



< 영화로움 >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거침없이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삼천명, 오천명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행4:21). 이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마라'라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하라'는 명령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마치 '고요 속의 외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할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출14:14),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진격해야 할 때도(수6:10) 가만히 있을 것을, 그리고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역설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광' 이전에 '저주'였고, '영생' 이전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광과 함께 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No Cross, No Crown)



원로목사 장 석 락
Pastor, Emeritus, Suk Rak Jang

담임목사 김 현 진
Senior Pastor, Hyun Jin Ki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157번길 59 TEL.031)976-6993~4 FAX.031)976-6997

